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0. 31.(목) 11:00,
(지면) 2024. 11. 1.(금) 조간

배포 2024. 10. 31.(목) 06:00

한-엘살바도르 라우니온항 개발협력으로 양국 간 우호증진 도모

- 엘살바도르 수리조선소 개발사업을 위한 한국-엘살바도르 간 협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엘살바도르 정부와의 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엘살바도르는 2015년 8월 항만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2023년 8월 엘살바도르 정부가 폰세카만* 인근의 라우니온(La Union)항 수리조선소 건설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수리조선소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다.

* 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3국에 걸쳐있는 태평양의 만

** '23.11.23~'24.11.21 / (주) 대영엔지니어링

이번 협의에는 양국 정부,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KOICA 등이 참여하여 그간 진행한 용역의 결과 보고 외에도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엘살바도르와의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중남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선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민범기 (044-200-5961)

참 고

‘엘’ 수리조선소 개발사업 대상지

□ 과업 대상지

